

2023. 3. 21

워싱턴 통상정보

美 상무부, 반도체법(CHIPS Act) 보조금에 대한 가드레일 규정 발표

박명서 과장 (myeongpark@kita.net)

□ 3.21(화) 美 상무부는 반도체법(CHIPS Act)에서 규정한 보조금에 대한 가드레일 규정 발표

- 美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, 러시아, 이란, 북한 등 우려국(foreign countries of concern)에 대한 투자 및 생산시설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
 - Gina Raimondo 상무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도체 기술이 적대국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반도체 보조금(incentives)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을 규정한다고 밝힘
 - 특히,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드레일 규정은 악의적 행위자가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
- 美 상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△보조금 수혜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, △향후 10년간 우려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투자를 제한하며, △국가안보와 관련된 반도체 제품에 대해 외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싱을 제한한다고 언급
- 美 상무부는 발표된 가드레일 규정에 대한 업계, 동맹국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향후 60일간 의견서를 수렴할 계획

□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가드레일 세부 조항 주요 내용

- ① 우려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시설(Advanced Facility) 증설 제한: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 내에서 첨단반도체 시설의 실질적인 확장(material expansion)을 위한 주요 거래를 금지
 - 美 상무부는 주요 거래(significant transaction)를 \$100,000 이상으로,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반도체 시설에서 최대 5%까지의 생산능력 확장으로 명시
- ② 우려국 내 범용반도체 생산시설(Legacy Facilities) 증설 제한: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 내에서 최대 10%까지 생산능력 시설 확장 인정

- 다만, 범용반도체 생산시설의 10% 확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시설에서 제조된 반도체 중 85%가 생산국 내에서 소비되어야 함
 - 만약, 보조금 혜택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동 규정을 활용하여 구형 시설을 증설할 경우 美 정부에 신고해야 함
- ③ 반도체를 국가안보 핵심물자(Critical)로 분류: 美 상무부는 양자 컴퓨팅, 군사 시설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을 국가안보 핵심물자로 분류
- 美 국방부 및 정보국은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핵심물자로 분류된 반도체 리스트를 확정했으며, 구형시설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라고 할지라도 동 리스트에 포함된 반도체의 경우 더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것임
- ④ 외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싱 제한: 보조금을 수령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싱 제한
- 특히, BIS entity 리스트, 재무부 NS-CMIC 리스트*, 연방통신위원회 국가안보 위험 장비 및 서비스 리스트에 명시된 당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라이선싱을 제한
- * Non-SDN Chinese Military-Industrial Companies(NS-CMIC) List: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증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명단